**문학을 객관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가?**

문학이론입문 - 서론: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저자는 서론에서 문학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기준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먼저, 문학은 허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수필, 자서전 등의 허구가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글들이 문학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그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 있다. 사실이나 허구에 대한 구분이 진정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다. 과거에는 사실이라고 여겨졌던 글이 시간이 지나면 허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 또한 가능하다. 이런 경우라면 과거에 문학작품으로 여겨졌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학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문학에서 절대적인 사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 글이 허구로 받아들여진다면, 이 글을 문학작품이라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문학의 구분은 주관적이 된다.

다른 기준으로는 일상 언어를 변형시켜서 사용한 것이 문학이라는 기준이 있다. 이 관점에서, 문학작품의 문장들은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표현, 기법, 구조 등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언어를 낯설게 인식하게 만든다.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 같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위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문학에서는, 낯선 언어를 접할 때 만들어지는 긴장 때문에, 사람들은 문학작품에 평소 일상보다 더 집중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더 강렬한 경험과 이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들이 마주하는 세상까지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언어를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로 나누려면,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상 언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일상 언어 그 자체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한 국가안에서도 사람들의 지위, 계급, 성별 등에 따라서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다르다. 따라서, 일상 언어가 명확히 규정될 수 없으므로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를 구분하는 기준 또한 명확하게 세워질 수 없다. 일상 언어를 사람들에게 낯설게 만드는 것이 문학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면, 위 관점의 또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상 언어들 속에도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될 수 있는데, 이 점을 낯설게 바라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일상 언어가 문학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앞의 경우와 비슷하게 일상 언어와 문학 언어의 구분이 힘들어지고, 따라서, 문학은 객관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위와 다르게, 문학이 담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게 표현했는가를 기준으로 문학의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 관점에서는 문학은 훌륭하고, 아름답게 쓰여진 것이어야 한다.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모두 문학이라면, 이 정의 속에서는 어떤 것도 문학이 될 수 있다. 앞의 형식에 중요성을 두는 관점과는 다르게 낯설게 하는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전혀 사용 되지 않더라도, 글 자체가 아름답다고 평가된다면, 문학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훌륭함이라는 평가가 사라진다면, 아무리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작품도 문학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은 영구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하게 여겨졌던 고전일지라도, 사회가 변하면서 쓸모 없어져버리게 되면, 더 이상 문학으로 취급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 여전히 고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사람들이 중점을 둔 부분과, 그 이후의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는 문학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문학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을 읽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문학을 판단한다.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문학을 읽는지에 따라서 문학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치는 문학을 읽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사회속에서 살아오면서 형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기반적인 가치들이 문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관점속에서 공통적으로 이끌어지는 결론은 문학을 객관적으로 정의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문학을 사실과 허구로의 차이로 구분하든, 문학에 쓰이는 언어의 사용에 집중하든, 문학을 구성하는 문장들의 훌륭함에 집중하든지 간에 어떤 관점을 통해서 문학을 바라보더라도, 명확하게 정해진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 속하는 것만이 문학이라는 확실한 규범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문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그것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